

# 바이오제약, M&A로 대형화 시급

SERI, 국내 제약기업 85%가 영세기업 ... 바이오·화학 연계 필요

우리나라는 바이오제약산업이 영세해 구조조정과 인수합병(M&A)을 통한 대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.

삼성경제연구소가 6월25일 발표한 <세계 바이오제약산업의 M&A동향> 보고서에 따르면, 국내 제약산업은 85%가 매출액 100억원 미만의 영세기업으로 700여개가 난립해 있어 영세한 국내 제약산업의 구조조정과 인수합병을 통한 대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.

세계 제약산업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대규모 인수합병으로 전체 산업 중 상위 10대 제약기업의 매출비중이 1990년 28%에서 2005년 41%로 올라갈 정도로 글로벌 메이저중심으로 재편됐다.

2005년 이후에는 바이오제약산업에서도 인수합병을 통한 경쟁구도 재편이 활발해 바이오제약 상위 10대 메이저 중 5개는 글로벌 제약기업의 자회사이다.

주요 제약기업들은 주력제품의 특허만료가 임박하면서 후속제품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으나, 화학합성 신약 분야에서 혁신제품 개발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.

이에 따라 유전공학과 게놈정보 등 바이오기술을 이용한 신약 개발이 대안으로 떠올라 신제품 확보수단으로 바이오제약기업 인수와 제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.

선진 바이오기술을 보유한 바이오제약기업들도 적절한 매수자에게 인수되면 연구개발비용, 임상개발, 글로벌 마케팅 등 바이오제약기업이 부족한 핵심역량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.

그러나 국내에서는 2000년 이후 바이오제약기업 인수합병이 10여건이 안될 정도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으나 핵심기술 확보와 외형성장 전략으로 인수합병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.

또 화학·소재 등 다른 업종에서도 국내외 유망기업 기술에 대한 인수, 제휴를 통해 바이오제약 사업에 대한 진입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나타나고 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7/06/26>